

[자작시] 죽어버린 칠레 혁명의 꿈

라틴아메리카사회주의

(2022년이 끝나기 전 한번 지어봅니다.)

때는 1970년 칠레 대선
한 인물이 당선됐다.
당선이 되자 칠레 전역은 환호의 소리로 물들고돈많고 땅만던 소수의 부자들은 침묵과 절망

아옌데! 아옌데! 아옌데!
사회주의 대통령 아옌데!
저 기나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칠레가
아옌데의 꿈과 의지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상을 향해 전진 할 것이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무상 급식을
가난해서 집없는 사람에게 무상 주택을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위해 분유 분배를
돈없어서 치료받지 못한 이들에게 무상의료를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의 꿈은 실현 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할 것이다!

혁명과 진보의 꿈을 향해가던 칠레에

온 겨레가 사회주의를 향해가던 칠레에
암울함이 들이 닥친다.

공산당 아옌데!
소련의 앞잡이 아옌데!
카스트로의 앞잡이 아옌데!
민생을 파탄 내는 아옌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저 부르주아지들은
사재기로 소비재를 고갈시키고
어용노조 파업으로 운송을 중단시키고
CIA의 공작으로 휘청거리는 칠레의 경제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저 사악한 미제가 인도주의를 무시하며
온갖 공작과 테러 그리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리라고

그래도 민중은 진보를 믿고 힘차게 전진한다
아옌데를 믿고 힘차게 전진한다
단결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는 혁명적 구호를 믿고 있고
벤세레모스(승리)는 단결한 민중의 것이기에!

아옌데를 지지하자!
혁명을 수호하자!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가난한 빈민을 구제하자!
단결한 민중의 힘으로 저 미제를 무찌르자!

그러던 1973년 산티아고에 울린 비행기 소리
진동하며 울리는 탱크소리
그리고 탱크에서 발사되는 대포소리
이것은 대통령궁에서 나는 소리

쿠데타가 시작됐다
미제가 사주한 쿠데타가 시작됐다
그러나 동지들과 함께 아옌데는 피델 카스트로가 선물준 AK-47 소총을 들고 저항했다

아옌데는 알았다 저들이 곧 들이닥쳐 자신을 죽일 것을
아옌데는 알았다 저들이 집권하면 칠레는 암흑사회가 될 것을
아옌데는 알았다 저들이 통치는 자본가들을 위한 친미통치라는 것을

하지만 아옌데는 연설을 했다

조국의 노동자 여러분!

저는 칠레와 칠레의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반역이 우리에게 강요한 이 잿빛의 쓰디쓴 순간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로운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갈 드넓은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칠레 만세!

인민 만세!

노동자 만세!

그리고 들려온 총소리

아엔데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엔데가 죽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됐다
지배자의 이름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빨갱이 사냥

아엔데에 협력한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하자
아엔데에 협력한 빨갱이들을 죽이자
좌파 지식인을 투옥하고 살해하자
자유국가 칠레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숙청으로
3만 명 이상이 죽고 수십만 명이 토옥됐다
그렇다 이것은 빨갱이 소탕이다
자유 국가 미국을 위한 국가 개조 작업이다

그리고 죽었다
그리고 숙청됐다
그리고 청산됐다
그리고 학살됐다

죽었다! 빨갱이